

경기도 안성지역의 老巨樹자원 分布 및 實態

안영희, 최광을*

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계열

노거수는 도시녹지 기능에 대하여 생존적 측면, 생활적 측면, 문화적 측면, 자연 보존적 측면, 생물 지표적 측면, 교육적 측면, 기상 완화 효과와 녹음의 양적인 만족감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다. 특히 취락지에 있어서 古木의 존재는 지역 주민에게 녹음의 만족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여 지역의 상징물로 되기도 하고, 신목(神木)으로 취급되기도 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정서 裨益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또한 지역의 상징으로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고 생활과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더없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, 나무의 연륜은 과거의 기후와 환경의 상황을 기록하고 과거의 기상등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종다양성 유지측면과 식물유전자원으로서의 활용 및 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생물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. 따라서 본 조사는 경기도 안성에 분포하는 노거수들의 분포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살아 숨쉬는 生命文化財로서의 가치는 물론 생태계 구성요소로서 매우 귀중한 노거수들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.

중부지역의 온대성 기후대를 나타내는 안성에서는 주로 은행나무(*Ginkgo biloba*), 느티나무(*Zelkova serrata*), 음나무(*Kalopanax pictus*), 참배나무(*Pyrus ussuriensis* var. *macrostipes*), 취양네(*Pyrus ussuriensis* var. *acidula*) 등의 낙엽활엽수종이 대부분이었으며 常綠性 針葉樹인 소나무(*Pinus densiflora*)도 한그루 조사되었다. 느티나무는 전체 조사건수 34건 가운데 25건을 나타내어 안성시 노거수의 73.5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특히 참배나무와 취양네 등의 배나무속 노거수가 생육하고 있어 안성이 배의 주산지로서 그 유래가 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. 노거수들의 추정연령은 200~299년에 이르는 개체가 13본으로 전체 38.2%를 차지하고 있었으며, 근원부의 상황은 포장이 전체의 16건으로 47%나 조사되어 근원부의 상황 甚惡 매우 열악하였다. 노거수의 훼손상태는 큰 줄기 및 잔가지의 훼손이 전체의 65%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노거수의 건전도는 34본중 전체의 2.9%인 단 1본만이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노거수의 보호대책이 심각하다고 사료된다. 또한 전체 조사대상 노거수 중 관계기관 及 보호수로 등록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 개체들도 상당수 조사되어 금후 관리 및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.